

중국 CNOOC, “우리 LNG 아니고 PNG인데...”

- ▶ 최근 Shell을 위시한 LNG 생산자들의 강한 중국 LNG 수요 예측에 대해서 CNOOC의 직격탄, “LNG 수요 예측 다시 해라. 우리 PNG다”. 장기적인 중국 PNG 스토리에 대한 재확인, 동시에 LNG 과도한 기대 금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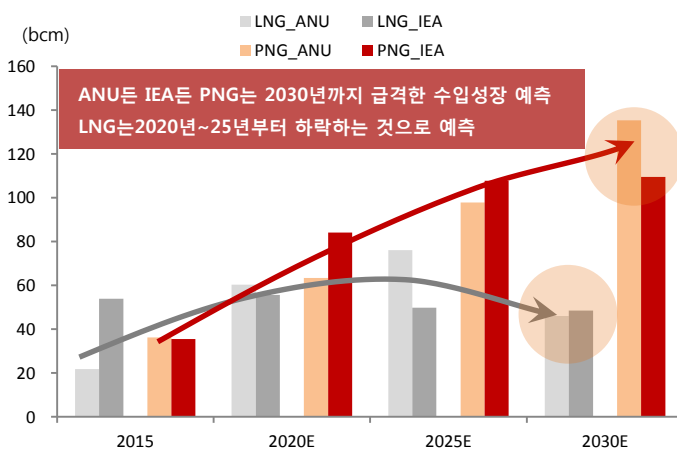
CNOOC가 말하길, “Shell, 중국 LNG 수요예측 너무 강하다”

“We expect LNG demand to continue to grow in China this year,” Royal Dutch Shell’s Steve Hill said on Friday, citing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cutting back on coal. (중략)

However, Zheng Hongtao, vice president of trading at CNOOC Gas and Power, said LNG producers ought to rethink bullish 2018 forecasts and take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pipeline outages, which drove up China’s LNG demand this winter. Daily shortfalls in piped gas deliveries from central Asia meant CNOOC and CNPC had to purchase 2-3 million tonnes of LNG equivalent supply via LNG spot markets, Hongtao said. “Without these emergent 2-3 million tonnes what would have been the (spot LNG) price?” he said.

자료 : Reuters(2018년 3월 10일), SK증권

호주국립대학(ANU), IEA도 중국 장기 수요는 PNG로 예측



자료 : ANU, IEA, SK증권

- 최근 중국 LNG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중국 LNG 수입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조선에서 LNG 용선료도 연초까지 급등했죠. 이를 두고 해외 유력 언론과 분석기관은 LNG 시대 부활론도 심심치 않게 재기고 있습니다

- 하지만 얼마 전, 중국 3대 국영석유기업 중 하나인 CNOOC가 흥미로운 언급을 했습니다. 가스/파워 트레이딩 부사장인 Zheng Hongtao가 Reuters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 내용을 요약하자면, “Shell을 비롯한 LNG 생산자들은 2018년 중국에 대한 bullish한 수요예측을 다시 해야 한다. PNG라는 요소를 계산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 동시에 덧붙인 이야기가, “중앙아시아 PNG의 순간적인 shortage로 2~300만톤의 가스 물량이 LNG로 몰린 탓에 LNG 가격이 올랐는데, 이 물량이 도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네요

- SK증권 리서치센터 에너지 파트는 이미 2017년 3차례 “New Energy Roadmap” Episode I, II, III(시리즈물)를 통해 중국의 막대한 가스시대 진입과 파급효과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 특히 I에서는 “PNG 시대 진입에 따른 철강 대굴기 효과”, II에서는 “PNG와 shale gas에 집중하는 중국인 만큼 LNG 관련 산업에 닥쳐올 수밖에 없는 위기”를 집중적으로 다뤘죠

- 호주국립대학(ANU)과 IEA 역시 중국 가스수요는 장기적으로 LNG가 아닌 PNG일 것이라고 역시 예측을 했었습니다

-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 PNG 수입을 추진하여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잠시 트러블로 PNG가 못 들어오며 LNG 수입수요가 급증했던 것인데요. 마침 러시아 PNG “Power of Siberia 1”이 곧 개통된다고 합니다. 왜 CNOOC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